

뉴욕서 잠든 한국 유물 100년 만에 깨어나다



100년이 넘게 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서 잠자던 당시 무인들의 의복과 화살 등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각 나라별 시기별로 수천 점의 유물들이 소장돼 있는 자연사박물관 수장고로 들어가는 통로. 이번 프라이빗 전시의 설명을 맡은 로렐 캔달 인류학과장(오른쪽)이 관람객을 안내하고 있다.

→A-1면 '갈등'서 이어집니다

신문은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 후원자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불법 후원금 기부 조사와 함께 이번 편법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포기했던 차기 시장 후보 물색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쿠오모 주지사과 드블라지오 시장의 갈등이 끊을 대로 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갈등은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쿠오모 주지사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고,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드

블라지오 시장이 TV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쿠오모 주지사를 비난하면서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차기 시장 후보로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 보로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스킷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특히 디아즈 보로장은 당초 시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않았으나 최근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지사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이라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100여 년간 맨해튼의 미국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에서 잠자던 한국 유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세계 굴지의 박물관으로 뉴욕의 심볼인 이 곳 수장고에는 1869년 설립 후부터 세계 각지에 탐험가들을 파견해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인류학 분야에서 소장된 한국 관련 자료와 유물들도 수천 점에 달한다. 본지는 25일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회장 로버트 텔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라이빗 전시를 동행 취재했다.

자연사박물관 프라이빗 전시 동행 취재

전 디렉터 로이 챔맨 앤드류 수집품 첫 공개 사진·비디오, 모자·무기 등 희귀 유물 선보여

이날 오전 9시45분쯤 맨해튼 어퍼 웨스트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 뒷문. 한인·중국인 등 아시아로부터 백인까지 다양한 인종의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원 40여 명이 100년 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코리아를 만나기 위해 모였다. 박물관 측이 공개하기로 한 물품들은 100여 년 전 자연사박물관 디렉터였던 로이 챔맨 앤드류가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 수백 장과 당시 서울의 모습을 담은 12분짜리 비디오, 또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 전달 받은 수천 점의 유물 중 다양한 종류의 모자와 활, 화살통 등 사냥 무기 등이다.

당시의 몇몇 사진들이 약 30년 전쯤 박물관에서 전시된 적이 있지만 모자와 무기 등의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유물 관람은 20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1부(수장고 유물과 영상)와 2부(사진 자료 100여 점)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물관 내부를 미로처럼 돌아 들어가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깊숙한 수장고. 세계 각국의 희귀 자료들이 고이 잠자고 있는 나무와 유리로 된 캐비닛을 좌우로 하고 걸어가자 육중한 문이 하나 더 나온다. 안으로 들어서니 대형 냉동고 같은 캐비닛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다.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인 로렐 캔달 박물관 인류학과 과장은 “수백 년 이상 된 유물이나 자료들 중 빛을 보면 손상되거나 습도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유물들은 이처럼 철저한 유물 보관 시스템의 보호를 받다가 오늘 드디어 프라이빗 전시를 위해 한 세기만의 바깥 나들이를 한 셈이다.

우선 당시의 박물관 디렉터 앤드류가 촬영한 12분짜리 영상이 흥미를 끌었다. 이 영상은 당시 서울 남대문 일대를 촬영해 자막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자갯거리에서 열린 공연을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과 빨래터에서 아낙네 10여 명이 빨래감을 다듬어 돌에 얹어놓고 두들기는 모습, 영상을 찍는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100년 전 조선인들의 얼굴과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에 포함된 자막에는 “일본이 부패한 정권으로 황폐화된 조선의 벌거벗은 언덕들을 훌륭하게 녹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영상 제작자의 친일 성향까지도 느낄 수가 있다.

‘경달래’라는 한국 이름까지 명함에 새기고 다닐 정도로 친한파인 인류학자 캔달 과장은 “1970년대 초에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수년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자주 간다”며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라며 오늘날의 한국에 관해 추가 설명을 보탤 예정이다.

조선시대 포졸이나 무사가 썼을 법한 투구의 붉은 물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래지 않아 신비감을 더했다. 갑옷의 일종으로 쓰인 붉은색 전복(戰服) 내부를 캔달 과장이 손에 장갑을 낀 채 자세히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엔 얇은 천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춰보면 화살이 병사의 몸을 관통할 수 없게끔 네모난 고무가 촘촘히 덧대어져 있다. 오른쪽에는 화살과 화살통, 활이 전시됐는데 화살통에는 사슴과 구름,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등 당시 토속신앙을 반영한 문양들로 섬세하게 장식돼 있다.

영상이 상영되는 앞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갖과 샷갓, 어린 여자아이들이 쓰던 장식용 모자 등 각양각색의 모자들, 죽은 이에게 입히는 수의,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에서 봤을 법한 넓은 챙의 여성용 모자 등이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박물관 내부의 도서관에서 계속된 2부 전시에서는 1900년대 초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 200여 장이 공개됐다. 특히 북한 함경북도 무산 지역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며 찍은 사진들은 조선 말기 한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사진을 촬영한 앤드류가 조선 복식을 한 채 곱방대를 물고 찍은 사진도 함께 전시돼 당시 조선인의 복색이 어땠을까 여겨던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한편 이번 프라이빗 전시는 텔리 회장이 온라인으로 구하게 된 내셔널지오그래픽 1919년 7월호에서 1900년대 초반 한국의 모습과 사람들을 찍은 사진의 출처를 찾다가 앤드류의 존재를 알게 돼 7년 전쯤부터 박물관 측에 다른 한국 유물들의 공개와 전시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박물관은 미리 예약할 경우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사진 자료들을 공개하며 유물들은 연구자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그룹 관람객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libref@amnh.org, 212-769-5400.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We are with you®

WooRee 우리보험 INSURANCE.COM

“트럭&밴보험전문” 사업 자동차 주택 생명 건강

NJ 201.944.9655 NY 718.994.9655

시간은 없고, 광고는 해야겠고... 중앙일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중앙일보

TIME

1983 2015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감성

시간이탈자

상영중

Edgewater Multiplex
339 River Road, Edgewater, NJ 07020 Tel. 800-315-4000

AMC Bay Terrace
211-01 26th Ave. Bayside, NY 11361 Tel. 718-631-0382

Good People, Smart Banking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er

희망이 크는 은행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고객님의 소중한 꿈과 희망
NOA BANK가 고객님의 밝은 미래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NOA BANK(은행장 김정호)는 2008년 조지아주(Georgia State)에서 창립된 한인은행으로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동북부지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대출 사무소 개설로 뉴욕 뉴저지 지역 고객님들께 신속하고 다양한 대출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NOA BANK 대출 서비스

- SBA융자(SBA Loan)
- 상업융자(Commercial Loan)

뉴욕 대출 사무소 : 서병찬 (David Suh)

315 5th Ave, Suite 508, New York, NY 10016

T. 646-912-9456, C. 484-686-8467

Email: david_suh@noabank.com

New York LPO
T. 646-912-9456
315 5th Ave.,#508
New York, NY 10016

Headquarters
T.678.385.0826
2400 Pleasant Hill Rd.,#340
Duluth, GA 30096

Duluth Branch
T.678.385.0800
2385 Pleasant Hill Rd.
Duluth, GA 30096

Doraville Branch
T. 678.385.0840
5938 Buford Hwy., #110
Doraville GA 30340

Johns Creek Branch
T. 678.892.7000
5805-A State Bridge Rd.,
Johns Creek, GA 30097